



농업기술상 본상을 수상한  
의지의 양돈인

1983. 11. 29일 세종문화회관별관에서 있었던 제24회 전국 농업기술자대회에서 본회 황금영 이사는 농업기술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본 상은 농민으로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이 상을 받고난 황금영씨는 “너무나 큰 상을 저에게 주시니 뭐가뭔지 모르겠으며 이 상을 받기까지는 제 아내의 힘이 무척 컸습니다”라고 피력하면서 슬며시 아내에게 그 공을 돌렸다. 황금영씨는 1969년도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순천종돈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본회 이사 및 순천밀알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순천청년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농업고교의 극빈학생에게 장학금도 주며 사회적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그의 아내는 내조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시집온 해에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온 바지 2개가 1년도 채 넘기도 전에 무릎이 나왔다고 한다.

황금영(39세)씨는 부인 김수자(36세)여사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아래에 소개되는 내용은 제24회 전국 농업기술자대회 축산분과토론회에서 황금영씨가 발표한 “축산과 양돈사업성공사례”이다.

돼지로 돼지에 대한 이야기와 신년사까지 썼습니다만 돼지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할만큼 한 것도 없고 제가 제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데 농업기술상이란 대상을 받고 보니 축산일선에서 지역발전이나 축산발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축산애호가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제가 상을 받게된 것은 저의 동반자인 제 아내의 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74년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할때 우직하게 저는 여자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선을 봤습니다.

첫째, 양돈을 해야한다.

둘째,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

셋째, 남편이 하는 일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하에 노력해 보겠다고 하여 현재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양돈사업을 정신없이 하다보니 3년이 지나도록 2세가 없었습니다. 불만을 느낀 제아내는 한약방, 병원등 이리저리 다니다가 아내는 제게 이상이 있다고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후 '77년에는 애기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1969년 1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뜻하는 바가 있어 해병대 R.O.T.C를 제대하고 1971년 6월30일 제대와 동시에 저의 선친께서 공무원생활 30년을 정리하시고 가정 경제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18정보의 야산과 450평의 밭을 마련해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73년도부터 돼지 6마리를 선발해서 양돈을 시작한것이 지금 1,500두의 돼지를 기르고 매달 250두의 비육돈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700평정도이고 450평의 밭도 3천평으



내조자와 함께 본상을 수상받기직전

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축산을 위해 120정보 야산을 구입했습니다. 40정보가 개간이 가능한것으로 생각하여 제2농장으로 만들어 보기위해 지금 기획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아버지의 5남1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릴때부터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열대여섯마지기 정도의 농사를 손수 지으면서 제가 어릴때부터 같이 손을 잡고 논으러 새를 잡으러 다니고 같이 벼를 베러 다니고 벼이삭도 줍고, 콩 한 톨을 아끼는 정성스런 근검절약 생활속에서 철두철미한 생활을 배웠고 또한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경건한 자세에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었고, 어릴때부터 흙 속에서 애써 일하지만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농촌생활을 보고 농촌생활에 대해서 동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농촌을 근대화 할 수 있을까 또 할머니의 염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가 하여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저는 R. O. T. C중에 육군에 입대하지 않



본회 이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하고 단체의 모임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고 해병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병대라면 상당히 낯작하고 기차도 무임승차하고, 과묵하고 무분별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군대를 지원한 것은 어떻게해서 저 사람들이 무임승차하고 술을 마시고 흔들거리는지 심리를 알아보고 내면적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해병대에 입대해 보고 나니까 고생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일동안 훈련도 받고 최전방에서 2년동안 R. O. T. C장교로서 2.2km 떨어진 북한을 바라보고 임진강을 지키며 다른 동료 이상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잠을자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도시에 나와 차와 기차를 타고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과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안되면 뭘때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투철한 군인정신을 배웠습니다.

1963년 6월 30일 제대하고 시골에 돌아왔을때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나 후배를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그 길은 제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물혀살기로 했습니다.

첫째, 비가오나 눈이오나 야산을 개간하기로 하고 밤나무를 심기로하고 조금이나마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5km 떨어진 곳을 손수레를 끌고 왕복했습니다.

밤나무를 심고 450평에 그때 당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관상수를 심었습니다.

그후 유축농업을 하기 위해 양돈을 해야했었는데 자금도 여유치 못하여 미루고 미루어 '73년도 1월 10평 남짓한 돈사를 손수지어 돼지 6마리를 입식시킨 것이 오늘의 근본이었다.

그동안 집도짓고 손수레도 끌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나 아침일찍 일어나 제 자신을 위하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 내 머리속에 하루 일과가 그려졌고, 그대로 행동했으며, 저녁이면 반성하는 생활을 2년동안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 크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품종선택이 잘못된것 같고, 사료도 잘못 선택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성장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제자신도 73년초가을에는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기려니 생각하고 병원에 가보았으나 오른쪽가



상패를 수여하면서도 더욱 정진할것을 약속

슴에 직경 4cm 정도의 구멍이나 3개월가량 요양을 했으나 차도가 없어 폐염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오로지 정신력으로 견디고 절제있는 생활을 하다보니 그후 회복이 급속도로 호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74년도 초에 돼지를 매달 20두씩 사육할 규모로 생각하고 돈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몸은 불편하고 잘 움직이지 않았으나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일했으며 매달 20두씩 출하계획을 이행하기로 하고 돈사를 지었습니다. 자금사정은 이미 바닥이 나 있는 상태여서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때, 새마을운동으로 손수레만 다니던 길이 넓혀지고 5.5톤 트럭이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돈사 근처에까지 차가 들어왔으나 땅값은 5~6 배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자리에 제가 돈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근처의 농민들은 땅값을 10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친께서는 이사를 할 것일 건의 했으나 선친께서는 한번 뿌리내린 곳에서 일을 해야지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처의 농민이 땅을 팔려고 내놓으면 다른 농민들은 땅을 내놓은 농민에게 값을 올려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자금사정에 여유가 없어 은행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살아

야 겠다는 굳은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300만원의 자금을 융자받아 이것을 갚기위해 적금을 들고 이자를 갚고 모자라면 친지들에게 사채를 얻어 갚아나가는 식으로해서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땅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매입하여 계속 늘려갔습니다. '77년도에는 사채가 850만원 있었으나 모두갚고 500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후 78년도에는 국제개발부흥은행 차관으로써 1,500만원의 자금을 융자받아 돈사 뒷쪽 땅 4,000평을 구입하여 축사 200평으로 지금의 농장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축사를 짓는 과정과 돼지의 사육도 중에는 백신의 잘못사용으로 '78년도 하반기부터 돼지가 시름시름 앓고 우량 종돈이 잘못 구입되어 200여두의 자돈을 손실당하였습니다.

'78년도 8월부터 3개월가량 돼지가 죽어나갔습니다.

연말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 가축병원이나 가축보건소로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가축을 잘 사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가축이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돼지를 싣고 왔다갔다 하면서 문의



매사에 충실하고 적극적이며 철두철미한 정신이 지금까지의 생활신조다.

하기도 하려니 힘도 들거니와 어린 가축들이 무척 애처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권혁진선생께서 저희 농장에 오셔서 진단을 하시고는 콜레라가 아니라 엔테로바이러스라고 진단을 하시고는 백신을 직접 만들어 줄테니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방접종을 맞은 후 15일이 지나고 나서 돼지가 죽어나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 당시 500여두 가량이 죽었습니다. 60kg 가량의 돼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78년도 하반기 호황이 왔을 때에는 만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또한 '79년도의 양돈 불황이 초래되었을 때에는 무사히 넘길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저는 돼지를 나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또 안되면 될때까지 밀어 붙여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정신으로 아침마다 매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와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그렇게 한 결과 지금의 1,500두 돼지와 매달 250 두를 출하하고 1년에 총 3,000두의 돼지를 출하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돼지가 죽어가기라 죽어가는 돼지가 보기 싫다고 종업원들은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농촌후계자를 육성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78년부터 인

근 농업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하여 여름방학부터 실습을 시켜 우수한 학생은 우리 농장에서 취업을 시키고 다른 농장에도 취업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농고생들이 책임성있게 일을위해 질병담당, 작업계획담당, 예방담당등 각각 맡아 작업계획을 세워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돼지값이 떨어지면 근본부터 알아내어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가운데 에서도 용기를 갖고 자기에게 맞는 사육두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적에 아이스케키가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이 나온 이래로 아이스케키 장사는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영세농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몇해전에 국내 어느 양돈장에 갔었는데 돈사 길이가 120평이며 냉온방이 잘 되어있었습니다. 배설물도 자동처리 되어있었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여러군데를 보았으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우리가 처해있는 당면의 과제인것 같습니다. 우리 양돈가는 항상 불안합니다. 돼지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

통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저의 경영방법 중 한가지는 외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외상을 금했습니다.

우리는 외상을 하지 않는 습성을 정의로써 농민으로써 축산인으로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양축가들이 돼지값이 좋다고 사료값과 돼지값은 어떻든지가에 사료를 전부 외상으로 구입 하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백이 모여서 천이되고 천이 모여서 만이 되듯 서로 협동하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협동조합형

태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금 거래 원칙을 세워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을 합리화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루 작업계획을 세우고 한달 작업계획을 세우고 양돈 사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외국 축산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료같은 것은 외상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제 힘을 모아야 할때가 왔습니다.

인체 총판!!

## 「수의사」가 질병상담하고 「약사」가 판매하는

# 家畜藥品 총판매장

협성가축약품공사

- 국내외 가축예방약 치료제
- 사료첨가제
- 소독약
- 양계 · 양돈용 철재주사기
- 기 타
- 지방주문 환영

協成家畜藥品公社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2동 654 (정량리오스카극장앞) 한일은행 정량리지점  
TEL: 967-8779, 966-9231 (야간)

상담수의사 延斗熙